

한 공직자의 양심선언을 발표하며

1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 피땀 흘려 일한 댓가는 어떠한 정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마땅히 국민에게 돌려져야 한다. 공무원은 마땅히 국민의 공무원이다.

악의 세력을 합리화 시켜주고 국민을 기만하는 명령이나 지시는 거부되어야 하며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폭로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일신의 안일을 위하여 한줌의 쌀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극과 희생이 우리 국민 자신에게 되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부천 경찰서의 여대생 근로자에 대한 성고문은 인간이하의 야만적인 만행으로서 우리 백만 공무원의 공직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 갔을뿐 아니라 우리국민 전체의 분노와 치욕을 불러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현정권 담당자들은 더이상 이같은 범죄적 사실을 은폐하려 할것이 아니라 진상을 백일하에 낱낱이 밝혀 백만 공무원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의법처단해야 한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가 없는 현정권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민()정책이 빛은 한 단면이다. 이는 한 개인의 인권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도덕과 인륜이 걸린 중대사이다.

2

지금의 공무원은 과거의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을 정치적 비리와 부정부패의 내막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견해를 자연스럽게 토로하고 있다.

언젠가는 자신들의 집단적인 견해가 표명될 것이다. 지난 2.12총선 당시 서울 강남구의 공무원 아파트에서 집권당의 표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야당표가 쏟아져 나오고 최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전단이 공무원 통근버스에서 발견된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최근 우리 현정서의 비극은 권력과 재물에 눈이 어두운 일부 정치군부와 이를 추종하는 철학없는 한줌의 아부군상 그리고 고급관료들의 허황된 부귀영화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독점계급과 고급관료를 살찌우고 공해, 빈민, 노동, 도시철거민 문제를 야기시키며, 국가안락이라는 이름하에 광주사태, 언론탄압, 성고문 사건등의 비인도적인 인명및 인권 유린 사태를 멋대로 자행하고 있다.

이 불순한 의도를 은폐하기 위해 때로는 무고한 시민을 고문치사하고 때로는 미혼의 여대생 근로자를 강제추행하는 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3

이제 나는 상소문을 올리는 심정으로 나의 양심선언을 국민앞에 바친다.

정부의 반민기만()정책은 타당히 철회되어야 하고 친민부민()정책을

추진하라. 그리하여 백성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백성을 살피우는 본연의 정책으로
되돌아 가라. 조속히 인권 회복과 민주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며 나의 강제 사직은 원인 무효임을
여자를 빌어 선언한다.

1985. 7. 28.

양심 선언자 김 형 배

성고문 성토하다 강제 사직당한 한 공직자의 양심선언

1. 인적사항

나는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아 현재 []에 근무하는 3급 부이사관
공무원에 상당한 신분의 35세 [] 김형배이다.
맡고있는 직책은 청소년 대책 전문위원이며 나 외에도 심리학, 사회사업학등을 전공한 석사이상의
전문위원3명이 현재 근무 중이다.

성명 : 김형배 () []

본적 : []

주소 : []

학력 및 경력

75. 2. [] 졸업

78. 6. []

80. 7. []

85. 2. [] 대학원 석사

85. 7. []

2. 권양에 대한 부친경청 성고문 사건의 충격

우선 이 사건에 관한 한 권양의 진술이 철대로 진살암을 맞는다는 김수환 추기강의 말씀을 상기하고자
한다.

무릇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의 역사였고 세계의 각국 정부도 인권에 관한 한

헌법에 이를 보장하여 이를 신장시키고 구체화하려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역사의 수레바퀴와 같은 인권보장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외면되고 은폐되어가고 있음은 가슴아픈 일이다. 특히 이번 부천시 성고문 사건은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실한 성고문으로까지 치닫고 있으니 비탄과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권력의 집행자이며 국민의 인권의 최후 보루인 경찰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 졌음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며 그것도 문형사 개인의 음욕이나 순간적인 탐심에 의해 빚어진 일회성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공무원 체계내에서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의도되고 행된 고문의 하나인 성모독 고문 행위였다는 사실앞에 아연할 뿐이다. 경찰서 안에서 그것도 경찰공무원에 의해 미혼의 여대생 근로자에 대해 가해진 성폭행의 진상이 낱알히 밝혀지고 그 관련자 및 지휘자 전원이 의법처단되기는 커녕 도리어 권양의 모략에 의한 의식화 선전이라니 말이나 되는 발표인가?

특히 피해자인 권양의 부친이 이사건에서 받은 씻지 못할 충격을 이기지 못해 일생을 몸담아 오던 공직(법원 서기관)을 그만두게 되었음을 알게 나는 분노와 함께 치욕의 부끄러움을 느껴 몸을 떨었다.

3. 화학탄이 난무한 19일 오후의 명동

당초 나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이라면, 또 경찰의 소행이 그들 말대로 정당하다면 성고문 폭로대회를 하등 저지할 필요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나도 그곳엔 갔다. 그러나 내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평화적인 집회를 가지려던 시민들을 다루는 경찰의 모습은 민주경찰의 면모는 한군데도 찾아 볼 수 없었고 폭력 경찰의 실상 그대로였다. 순간적으로 최루탄 가스에 질식할 듯해 발길을 돌려 향린교회 앞 골목으로 피신했으며 다시 화학가스의 독성을 피해 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앞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중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시위학생과 신민당원을 에워싸 지켜보면서 때때로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등 시민의 지지와 호응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시위대 뿐만아니라 군중들 가운데는 40-50대 중장년들, 60-70세의 노인도 가담하여 더 이상 이와 같은 비열한 성고문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결의로 태극기를 흔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범국민 폭로대회에 용기있게 처음부터 참가하지는 못하고 먼 발치에서 비록 부끄러운 자신을 괴로와 하고 있었으나 공무원인 내가 실천해야 할 숭선수범의 정의행정은 어디로 가버렸는가를 생각하고 변민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이곳에 오기전까지 남들이 행여 눈치라도 채까봐 성고문의 진실을 사무실내에는 압박에도 내지 못하였을 정도였으니까.

"이래가지고서야 백만공무원이 믿음을 갖고 공직에 전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정치문제에는 초연할 수도 있다지만 정치이전 인권유린에 대해서조차 할 말을 못하고 골목은 병어리 마냥 지내야 할 것인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도 기계처럼 복종하고 이에 가담하여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나의 뇌리를 맴돌았다.

4. 충무로역 - 숨죽였던 양심이 마침내 외치다.

그날 오후의 명동성당 근처를 맴돌고 먼발치에서나마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리던 나는 스스로 무척 부끄러웠다. 정치문제에 대한 견해의 표정도 아니고 인권문제 앞에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비굴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던 나는 결국 무엇이 되어 버리는가? 어떤 악의 사주도 꿰뚫어야 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거짓을 말하 행해야 하는가? 나는 괴로웠다. 마침 석간신문을 사 본 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지주이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에 눈이 간 나는 다음과 같은 위로 서한의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친애하는 권양에게. 무어라 인사와 위로의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심과
회복을 위해 용감히 서있는 권양을 주님이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길 믿고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용기를 잃지말고 진리이신 하느님께 모든것을 맡기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1985. 7. 18.

김수환 추기경 "

나는 그 순간 섬광처럼 진리의 힘과 그 최후의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었다. 나는 감격스럽게
"마땅히 나는 국민 공무원이어야 한다" 고 믿게 되었다. 이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의 고통
때문에 숨죽이며 괴로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자신의 양심마저 스스로 속인 사람이
누군들 기만하지 못할까? 이제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자. 그래서 우선 내가 서있던 지하철 총무로
역구내의 역무원을 붙잡고 따졌고 주위에 있던 200여명의 시민이 이를 지켜 보았다. "당신도 준
공무원인 국영 지하철 공사 직원이니 생각해 보라, 경찰이 성고문을 그것도 23세의 미혼 여대생 근로자
에게 자행할 수 있는가. 당신이나 나나 성고문과는 무관 할 수 있는 직책인데도 왜 우리까지 괴로와
해야 하는가. 변호인단이 진상조사에 밝혔듯이 이 사건이 경찰공무원 한 사람의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조직적인 성고문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사과권이 돼 가겠는가. 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밝혀내는 데 주저하고 관련지휘자와 책임자 및 그 배후를 엄벌하지 않는가"라고
따졌고 그도 함께 통분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역무원은 경찰에 나를 도리어 신고하였고 나는
경찰의 출동하기전의 10여분간 역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계속 외쳤다. 마침 정북 경찰관이
달려와 나를 연행하 하였을 때 나는 분심과 의분을 참지 못해 지하철 승객들을 향해 "시민 여러분
수사경찰이 여대생을 성고문 해도 됩니까?" "강간 경찰을 처벌하라" "부천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발표하지 못한 검찰 책임자와 이를 지시한 연정권 담당자는 물리가라" 라고 연거푸 외쳤다.

나는 계속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진리는 승리하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외쳤다.
연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은 나를 향해 박수도 쳐주고 지지의 뜻으로 연행되어 가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하였다.

5. 강제연행

이렇게 외친 나는 청사북 경찰관과 역무원등 수경에 의해 현장에서 오후8시경 강제 연행되었다.
중부경찰서로 연행된 나는 계속 나의 진실을 알리고 또 외쳤다. "성고문을 경찰관이 자행해도 되는가.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도리어 인권을 유린하고 여대생 근로자를 강제 추행하여 인격을
파괴시켜도 되는가"를 따졌다. "정조를 송두리째 유린한 경찰관은 물러가고 마땅히 엄벌하라" 고
알렸다. 밤 10 경 나는 경찰관 앞에서 진술조서를 받게 되었다. 담당경찰관은 나의 진술을
대충 듣고 문답식 진술서를 약2시간에 걸쳐 작성하였는데 주로 "술을 마셨느냐. 취중에 한 것은 아니냐"
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그렇다" 라고 했다. 나는 술을 약간 마신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순간적으로 나 자신과 나로 인해 피해가 혹시 갈지도 모를 직장 상사들 그리고 나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린 순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다시 나에게 상기되었기 때문이다. 기왕 진술
할 바에야 술을 아주 많이(정총 20병) 마셨다라고 진술했다.

담당 경찰관은 그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으나 이는 나의 신분문제 그리고 직장상사의 안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부천서에서 비롯된 성고문 사건이 혹시 미칠지 모를 내 가족에 대한 영향등의 두려움에서
이전 비롯된 과장에 불과했음을 밝혀준다.

생각해 보라, 경찰조서대로 어떻게 무슨 수로 술 20병을 단 1시간 반만에 친구2명과 라셔달 수차
있으며 또 마셨다 하였더라도 그만큼 엄청난 술을 마시고 어떻게 담정히 걸어서 친구와 만난 장소인

자보()빌딩에서 충무로역까지 걸어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내가 차표를 끊고 역구내에서 또렷하게 경찰을 비난하는 외침을 여러 시민 앞에서 할 수 있단 말인가?

6. 사표 강요와 강제 사직의 과정

-- 총리 비서실장이 나를 신병인수 해 가도록 지시하다 --

12시에 조사를 마친 나는 보호자 대기실 특방에 보호 조치 되었다. 내가 경찰서 내에 있는동안 조사를 전후해 받았던 특 대우를 대기실에 가서도 다시 받은 셈이다. 이를 참지 못한 나는 명동 대회 관련 시위 대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던 옆방인 일반 보호자 대기실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일반대기실로 옮겨졌다. 그속에서 나는 대학생 10여명과 본신근로자 박영진씨 부친을 만났고 내가 특방에서 나와서 이방으로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진지했고 마치 인권의 수호신 같았으며, 특히 박영진씨의 부친 말씀은 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의 잘못된이란 부천서 성고문을 폭로해 진실을 외친(?)밖에 없으며 이점에서 나의 경우와 전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安危를 뒷전에 제쳐놓고 공무원 신분인 나를 진심으로 염려했다. 그들에 대한 수사도 결국은 부천서 경찰의 성고문을 은폐하려는 또 하나의 음모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왜 평화적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 끌려와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야 할까? 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대한 답()은 자명한 것이었으니까.

그렇다. 그들은 나라의 인간화, 인간복음 그리고 인권회복을 위해 이렇게 맨손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정부기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나의 대학후배도 있었고 나이 어린 대학생도 있었으나 인권문제에 대해서만은 확고한 신념을 가진 듯하여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오며 고뇌했던 나는 무척 부끄럽고 창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보다 부러움이 앞섰다.

다음날 나는 낮 1 1:30분경 경문도 모르게 혼방되었다. 나도 모를 일이 일어났는데 국무총리 하순봉 비서실장이 치안본부장의 전화보고를 받고 총리실 박진호국장을 보내 내신병을 인수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하비서실장이 치안본부장으로부터 "김형배라는 총리실 직원이 명동사건의 주동자 되어 시위하다 경찰에 연행되어 있으니 그의 신병을 빨리 인수 해가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며 즉시 자신에게 연락한 것이라기 사무실로 돌아가라고 했다.

사무실에 돌아온 나는 직속 상사인 김창년 국장과 만났으며 그는 나에게 그간의 경위서를 간략히 써 달라고 하여 전기의 경찰조서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그대로 작성해 주었다.

나는 마침 월요일(21일)부터 휴가였으므로 그냥 사무실에서 나오더니 월요일 정상 출근하라고 하여 월요일 일찍 출근하였다.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국무총리 제2행정 조정관인 김찬진 관리관(1급)이 나와 김국장(이사관2급)을 불러 오전 정례총리 보좌관 회의에서 노신경 국무총리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면 상당히 괴로워 했다. 잠시 후 김국장과 나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으나 김국장은 나에게 "지금 즉시 사표를 제출 하라"고 하여 나는 이를 거부하였고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대답하였는데 다시 이 소식을 들은 김조정관은 나를 불러 "노총리가 '일요일 밤10시경 직접 안전기획부장에게 전화를 통해 보고받아 안사건'이라고 말하며 총리가 화를 내더라. 당신사표는 조속히 처리 해야 한다"며 다시한번 사표를 강제하려 하였다. 일이 이 상황에 이르러 내상사인 김조정관이나 김국장과 내가 한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학제 일을 했고 서로의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를 박정하게 끊을 수 없어 나는 강제 사표를 내고 사무실을 나온 것이다. 그러나 사표를 내는 순간 그들은 나에게 "최근에 입은 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 만큼 신병치료가 잠시 퇴직한 것이라고 외부에 말하라"

했으나 사직은 권양사건과 같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나의 견해표명과, '시민들 앞에서 행한 나의 죄심'에 대한 압력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그들은 나로 하여금 강제사직의 위유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이것이 압리짐으로써 자신들에게도 가해질지 모를 피해를 막아보자는 의도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지금은 믿는다. 정치적인 이유도 아닌 인권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 때문에 강제사직을 시킨것은 분명 원인무효이며 부당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어찌 강제사직이 단 하루만에 일어날 수 있는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저항하고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규정의 정신은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7. 나의 양심 선언

이제 나는 비록 강제 사직해 공직에서 쫓겨난 몸이 되었으나 이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단언함에 당당히 밝힌다. 나의 사직을 결과한 부천서 성고문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정의 수호의 방향과 의지를 이정권이 수호하고 실천하기는 1년 이틀 완전히 무시하고 성고문의 방법까지 동원해 도리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자신들의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한 이 역사적 범죄는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이것을 통해 정권유지에 혈안이되어 있는 이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단면에 다름 아니다. 23세의 꽃다운 여성근로자에게 가해진 추악하고 더러운 조직적인 성고문의 죄과는 결국 현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폭로 할 뿐이며 그로인해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거지않아 받게 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다시 한번 밝혀두지만 권양의 모든 주장은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대로 단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다. 이 고금동사건 유래없고 전대미문의 성고문에 의한 단행의 진상이 백일하에 공개되고 그 관련자들이 남김없이 의법처단되기 전까지는 나는 침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땅의 모든 국민과 산천초목까지도 결코 잠잠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인권과 인륜도덕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8. 전국의 백만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공무원은 마땅히 국민의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더이상 특정 정치 집단이나 한줌도 안되는 인권침해의 현정권이 마음대로 부려먹는 독재정권의 하수인 혹은 독재자의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 피땀흘려 이룩해 놓은 일의 댓가는 어떠한 독재자나 정치권력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되고 환원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이상 악의 세력을 합리화 시켜주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에 강제 동원되어서는 안됩니다.

백만 공무원 동지 여러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합니다. 더이상 스스로 "명령이나 지시때문에 할 수 없이 불법,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발뺌을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결과는 문형사라는 하수인 한명의 파면과 말단 경찰서장및 간부몇명의 직위해제 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고문수사가 상습화 되어있고 이번 성고문 사건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례화 해온 최고 책임자인 서장, 치안본부장, 네무부장관은 파면되지 않은 것입니까?

최소한 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여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 공무원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던져 줄 뿐입니다. 부당한 지시와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직공무원, 교정직공무원,

군 공무원 여러분 !

이제 우리는 당당히 국민의 공무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릇되고 불법적인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 우리의 양심은 오염되고 금기야 이양심의 타락은 어떠한 불의와 부정부정도 무의식적으로 무감각하게 저질러가고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급 지휘자인 고위책임자가 물러난 경우를 보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당신들의 부정과 불의의 집행으로 덕을 보고 이()를 취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치 부패의 공무원들이 그들의 흉칙한 음모에 말려들어야 합니까?

부천서 사건은 권양의 인권회복에 그칠 개인적인 사건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처, 여동생 그리고 이 들 모두 아니 국민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5천년 역사의 빛나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미풍양속 그리고 문화민족의 아름다운 인륜도덕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公安직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합니다. 개혁과 민주화를 눈앞에 두고 문화 민족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노력하십시오. 불법적인 수사 심지어 고문, 성고문 수사에 설사 동원되었을 경우 이 불법적인 수사 와 고문의 현장을 똑똑히 기억해 기록해 둡시다.

불의가 자행된다면 그들의 최고 지휘자가 누구인지 꼭 알아내 기록해 둡시다.

그들의 잘못이 시간이 흘러서도 묻히지 않고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그리고 이땅에 정의와 인권이 꽃피울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

마지막으로 나의 미혼여성의 나이 어린 몸으로 엄청난 조직 폭력과 정치권력 앞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온몸으로 증거해 인권회복의 빛날 지평을 연 권양의 고충과 용기에 동참하면서 백만 공무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앞에 이 양심선언을 바칩니다.

인권 회복 만세 민주주의 만세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 만세 !

만일 이 양심선언으로 혹시 나에게 음해와 탄압이 닥쳐와 나의 진의가 잘못 알려진다 해도 이는 결단코 나의 진실이 아니며 이 양심 선언만이 불변의 나의 진심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1985. 7. 28.

양심선언자 김 형 배